

[그말씀 설교 12]

목자와 양의 역할

[본문] 요 10:7-18 / 대천덕 신부 / 페이지 수: 4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희생이 되시고 또한 선행의 모본이 되게 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날로 힘을 다하여 주의 거룩하신 생활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선한목자주일’이라고 일컫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서신 말씀에서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는 구절과 함께 예수께서 목자가 되시기 전에 먼저 고난 당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을 위한 앞의 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범이 되신 목자

그 한 가지는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희생이 되신 것인데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선행의 모본이 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제목은 우리를 위해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신 분께 은혜를 청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무한하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거룩하신 생활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들이 그를 따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죄인이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죄의 희생이 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양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지만 돈 때문에 양을 지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농촌마을에 가보면 교회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 사람 도둑놈이야!"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때로 사람이 양 무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양을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요 양이 자기 양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샅꾼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샅꾼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는 정부가 갑자기 바뀌게 되어서 교회가 심한 핍박을 받을 때 목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도망가므로 교회도 약해졌습니다. 반면에 어떤 나라에서는 똑같은 핍박을 받고 심한 놀림이 있었지만 목자들이 양들과 더불어 고난을 함께 당하여 오히려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확장하게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또 목자 역할보다 정확히 말해서 부 목자 역할 하는 모든 성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담대함을 얻어 두려워하지 않고, 돈 때문이 아니라 오직 양을 사랑하므로 선한 목자의 본을 받아 충성스러운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을 위한 양들의 기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그 누구보다도 목자들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마귀가 양들에게는 비교적 관심이 없는 편이지만 목자에게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책임이 있는 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목자로서 부 목자 역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참으로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일반 성도들에게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목자가 되신 분이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일이 잘될 때 감사를 드리고 찬미를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나 핍박을 당할 때, 불의를 당할 때도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구별해 주는 척도가 됩니다. 서신 말씀은 너희들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잘 견디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명

누구든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때 견디어야 하지요.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며,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함과 고난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즉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견디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우리가 왕의 자식으로서 부자로 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왕의 아들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신분을 얻게 하신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가난하게 살고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능력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남을 위해 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의 자식이라고 하여 부요하게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고난을 견디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왜? 이 세상이 아직까지 죄에 깊이 빠져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자랑하기만 하고, 특권 휘두르기만 하면 죄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딤으로써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고난을 당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생활에서도 다른 신자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면 '아 이거 좋은 연습이구나!'라고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죽는 연습인줄 알고 감사함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시다.

자꾸 자기 입장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한번 자기의 입장을 말해서 다른 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만두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문제 악화되고 또 복잡하게 되어 아름다운 공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영혼의 감독자와 목자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양들의 특별한 혜택

목자의 보살핌을 받게 된 양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 말입니까? 나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 잠재의식에 있는 복잡한 문제로 인해 자꾸 좋지 않는 행동이 유발됩니다. '나음을 얻었다'고 하면 '내가 잠재의식의 종이 될 필요가 없고 내 속사람의 병이 치유되었고 예수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병뿐만 아니라 잠재의식의 문제, 복잡한 심리적인 병도 또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므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또한 "우리도 채찍질 당하므로 남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미와 목자의 대리 역할

우리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16절에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라는 말은 상당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한국말에서 '우리'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나타냅니다. '울타리'를 뜻하는 동시에 일인칭 복수대명사로서 '우리'인데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이지요. '한 울타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데 우리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양, 즉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사는 하나님의 양이 바로 '우리'에 해당하는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망하는 다른 양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입니다. '내가 그들을 찾아야 한다.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잃은 양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나가서 들어오라고 청하여야 하지요! 우리들이 가만히 앉아서 재미있게 공동생활하고 우리끼리만 아름다운 교회생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은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아직까지 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한 양들을 위하여 항상 애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로서 나가서 양들을 찾고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목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야 하지요. 우리들의 목소리가 없으면 이 땅에 예수님의 음성이 전파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과연 목자에게 돌아오기를 청하는 사랑에 가

득 찬 소리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소리입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를 통하여 전하여집니까?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하여 우리들의 다리와 우리들의 음성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리를 기꺼이 사용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흩어진 양들을 모아 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의 돌보심 아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생활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양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광야에 흩어진 양들입니다. 몹시 거칠은 광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써 잃어버렸던 양을 찾고 무사히 우리까지 몰고 왔을 때 그때의 기쁨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양을 찾았다"고 외치며 기쁨으로 총만하겠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의 기쁨은 이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양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선한 목자의 자취를 따라가는 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가서 잃은 양을 찾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냥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양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양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다리를 사용하고 우리의 음성을 사용하여 광야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 출처 : 그말씀**